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 “양자산업 육성”

전문가와 의견 공유 관련 조례발의 통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남 부의장은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37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을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내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려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남 부의장이 제37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달 20일 자치법규로 공포되면서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다.

남 부의장은 양자산업 육성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 "지난해 한국나노기술원 현장 투어중에 '양자과학기술'을 처음 알게됐고 국회에서도 양자법이 통과된 사실을 접하면서 늦었지만 경기도에서도 양자과학기술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고 양자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기대효과와 계획에 대해서 남경순 부의장은 "같이 멀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양자정보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과 경기도 내 양자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거라 믿는다"면서 "조례 발의 후 첫 번째 추진 사업으

로 경기도 내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공유를 위해 이달 말 양자산업육성 관련 포럼을 집행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 부의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이제 양자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서로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경기도의 강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양자산업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경기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시흥 소재초 수영장 건립 예산 확보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중·개축을 추진 중인 소재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추가로 건립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및 생활수영 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주당, 시흥1, 사진) 부위원장은 2일 소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38억 원(국비 30억, 경기도도교육청 10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재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후 급식실 증축과 체육관 개축 등 공간재구



조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총 138억 원을 투입해 체육관 지하에 25m 규모의 4개 레인 등 1500㎡ 규모의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다.

특히 시흥시의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소재너나들이'를 개관하고 공영주차장·작은도서관·공영장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온 소재초등학교는 이번 수영장 건립 및 개방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영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는 '학교복합시설의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김인창 기자

GTX플러스 노선 동의정부역 포함 '결실'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민주당, 의정부) 의원이 1일 경기도의 GTX플러스 노선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정부 동부지역에서 강남까지 30분 이내 가능한 시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도의원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첫해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에 경기도청의 사업들과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지역 일정 외 나머지 시간들을 전력투구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에 대해 고민했지만 실상은 8호선 연장안 실현은 녹록치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8호선 연장 구간의 대부분은 남양주시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철도 전문가들도 막대한 예

산 투입 대비 남양주시 주민 편의 및 실익이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GTX플러스 노선 핵심공약'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플러스 노선이 마침 별내역에서 송우역(포천)으로 노선 톱 다이렉트로 계획이 돼있어서 이 노선을 우리 의정부 동부지역으로 경유

하는 방식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컬럼, 생방송 출연 등 의정활동을 통해 '공용선로와 공용역사 신설을 통한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해왔다.

오 의원은 "이날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GTX플러스 노선 발표에 정식적으로 (가칭)동의정부역이 포함됐다"면서 "의정부 동부지역에서도 30분 이내 강남까지 도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인창 기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 위촉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가 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을 비롯해 황운연(공인회계사)·허재필(공인회계사) 등 총 3명이다.

한 대표위원은 "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환 의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자세로 결산검사에 임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강화군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유지남 기자

“영웅들이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

98급양호 위령탑서 참배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이 1일 인천시 중구 역무선부두 98급양호 위령탑을 찾아 현화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98급양호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부유물 수색에 나섰던 선박으로 수색작업 종료 후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당시 사고로 총원 9명 중 선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박 의원은 "많은 분들이 천안함 피격 사건은 기억하지만 98급양호 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천안함 실종자를 구조하다 사망한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 실종자와 함께 추모되고 있으나 98급양호 선원들은 어느 곳에서도 기억되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위급한 상황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이 1일 인천시 중구 역무선부두 98급양호 위령탑에서 현화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사진=인천시의회)

에 목숨을 걸고 섰다 나서주는 영웅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는 영웅과 의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98급양호 선원들과 같은 평

범한 영웅들이 기억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앞장서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올

부터는 천안함 46용사, 한주호 준위와 함께 98급양호 선원들의 이름도 같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조례안 2건 제출

소관 상임위 회부

화성시의회는 2일 오전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월2일 개최 및 산회)를 개최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인구 100만 돌파에 따른 특례시 전환을 앞두고 화성시와 화성시

의회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고 하며 "의원들께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상정안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화성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장으로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화성시의회는 2일 오전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화성시의회)

김 의장은 이날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까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강송수 기자

일간경기
www.1gan.co.kr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뉴스체크

일간경기 모바일앱

**진짜
간편하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검색창에 일간경기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